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Mediation Effect of Grit

1차원고접수: 2023.01.09. 수정원고접수: 2023.08.25. 최종게재결정: 2023.09.15.

박영아¹ · 최지영²

¹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석 · 박사 통합과정 수료

²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Park, Youngah¹

Choi, Jiyoung²

¹Dept. of Counseling, Hannam University

²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시의 초등학교 5 · 6학년 남학생 173명, 여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은 그릿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셋째, 그릿은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사이를 매개하였다. 넷째, 그릿은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사이를 매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그릿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증진에 있어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며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의 기본이 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그릿의 특성을 이해하여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초등학생,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on 173 male and 173 female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D cit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analysis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a correlation analysi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bootstrapp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both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grit. Secon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grit directly affected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Grit mediated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urth, Grit mediated between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it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re the basic variables for school life adjustment. In particular, the study provides basic data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 to improve students' adaptability to school life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of grit.

Key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grit, school life adjust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학령기 아동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생활하는 곳이다.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 규칙에 대

한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곳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회화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무렵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총체적 삶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김선영, 2007;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최지영 (Choi, Jiyoung)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E-mail. choi0122@hnu.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조호운, 서수현, 이승희, 김재철, 2014).

초등학교 5·6학년 시기는 아동 후기인 동시에 청소년 초기이다. 이 시기는 여러 가지 특성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정서가 불안정하여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인지적 측면에서는 추상적이고 논리적 사고력이 신장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하려고 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증시하면서 또래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이옥희, 2017).

발달심리학자들은 학교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청소년과 아동이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것이 그들의 발달과정에서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였다(Newman & Newman, 1984; 좌현숙, 2012에서 재인용). 아동이 학교생활적응 과정에서 좌절, 긴장, 불만족,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학교 규범으로부터 이탈 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키치게 한다(장성화, 김옥진, 2011). 따라서 청소년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환경적 변인 및 개인적 변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의 적응 및 부적응과 관련한 최진아와 이숙의 연구(1996)를 살펴보면, 아동은 부모를 주된 지지자로 인식하고 다음으로 교사, 또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지각한 높은 사회적지지가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아동과 밀접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부모, 교사, 친구들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 지원으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정서적, 도구적, 평가적 지지의 정도를 의미한다(Nolten, 1994).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인 중 하나로 사회적지지에 주목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있다(김아영, 2018; 성선진, 2010; 안지영, 2015; 이상영, 2016; 정초하, 안도희, 2016; 조수진, 2017; 최아라, 이숙 2017; 하도연, 김선희, 2018). 아동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 친구는 아동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김지은, 2005).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태준, 2016).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교사 능력을 더 우수하게 지각하고, 교사와의 친밀도가 높으며 학교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김성호, 2016). 다시 말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기 지각의 개인적 변인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작용하며 개인의 적응이나 부적응 행동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용래, 유효현, 2002).

학생들은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같은 긍정적 심리감이 높아진다(Isakson & Jarvis, 1999). 즉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높은 효능감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려 하고, 더 오랫동안 지속하며 학교생활에서의 수행능력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난다(Schunk, 1990). 이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능력을 통하여 형성되는 신념은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진다.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학교생활적응은 친구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교사와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Jiang,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감과 더불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높고, 비행 문제는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자신감 및 신념 증진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Jiang, 2013; Rohner, 1991).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 및 확신감이 부모지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이루어

지며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으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unt, Wilder, Steele, & Grant, 2012).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 개인 특성 중 하나인 ‘그릿’을 들 수 있다(이숙연, 2019). 이는 한 사람의 개인이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성취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도중에 실패 경험을 해도 다시 시도하려는 열정과 인내를 뜻하는 말이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은 관심의 지속성(consistency of interest)과 꾸준한 노력(perseverance of effort)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하나의 목표를 얼마나 오랫동안 추구하는지를 의미하고, 후자는 목표를 위해서 인내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도를 뜻한다(Duckworth et al., 2007). 그릿은 성공적인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을 예언하는 특성 중 하나이고(Duckworth et al., 2007),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속성을 가졌으며 아동기에 급격하게 발달하고 성장하므로 이 시기에 그릿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김진구, 박다운, 2017; West, Dyrbye, Erwin, & Shanafelt, 2016). 개인이 지닌 심리 상태에 따라 환경에 대한 대처와 적응능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Berry, 2003; 이숙연, 2019에서 재인용), 그릿은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전향신, 2018), 그릿이 높은 초등학생은 학교생활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며(강지선, 이규진, 이모영, 2022), 여러 선행연구(이수란, 손영우, 2013; Akos & Kretchmar, 2017; Duckworth et al., 2007; Eskreis 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 Strayhorn, 2014)에서 그릿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황매향, 하혜숙과 김명섭(2017)은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릿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에서 그릿의 하위변인인 꾸준한 노력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릿의 또 다른 하위변인인 관심의 지속성의 효과성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그릿의 의미를 축소할 수 없으며 꾸준한 노력의 하위

변인이 가지는 효과만으로도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강지선 등, 2022).

De Vera, Gavino와 Portugal(2015)은 부모, 교사, 친구들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지지가 개인적인 목표와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끈기에 주요하게 기여한다고 밝힘으로써 그릿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릿의 하위요인인 꾸준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가정환경의 측면에서 어머니의 행복도와 인내심, 자유로운 의사소통, 새롭고 다양한 경험 권장 등이 있고, 학교환경의 측면에서는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등이 있다(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솔, 2015). 또한, 부모의 사회적지지와 그릿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조수진, 2017; 황은희, 2017)도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볼 때, 가족과 친구, 교사의 사회적지지가 그릿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최영현, 2019).

또한, 자기효능감과 그릿은 두 변인 모두 목표를 지속하는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이서정, 신태섭, 2018).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나 대처효능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지만(Scholz, Doña, Sud, & Schwarzer, 200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 다양한 상황 과제에 일반화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에 주목하였다. 난독증 고위험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희와 송선희의 연구(2020)는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박미선, 김영화, 권선아와 이수영(2021)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그릿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릿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면서 그릿은 최근 학계 및 교육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이정림, 권대훈, 2016). 그러나 그릿이 하나의 학문연구로 시작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그릿과 관련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

구들이 많지는 않다. 그것을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강조한 Tough(2012)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려면 수업, 교육과정, 환경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이의 연구(2019)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적 그릿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에서 학업적 그릿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여울, 구민주와 박다운(2019)은 현재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는 그릿은 개인의 인지 및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재열(2018), 홍다현과 김정섭(2021)은 그릿이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그릿은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를 넘어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한편, 김창규(2020)는 초등학생의 그릿은 성장 마인드셋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그릿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최영현(2019),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이종명(2019)의 연구결과를 보면 그릿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그릿, 협력적 조절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남미정의 연구(2018)에서는 정서지능을 높게 지각한 초등학생일수록 그릿, 협력적 자기조절이 높았으며, 그릿, 협력적 자기조절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행복감도 높아짐이 나타났다. 이영주와 김덕진의 연구(2019)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또래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정운의 연구(2020)에서는 초·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그릿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지각한 친구, 가족, 교사에 의한 사회적지지가 중요

한 긍정적 선행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 및 자신감을 의미하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목표 성취 과정에서 실패 경험을 해도 다시 시도하려는 열정과 인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릿 역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가족, 교사에 의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그릿과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적지지와 개인적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여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그릿을 매개변인으로 예측하여 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가 규명되면 그릿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물론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계획하는데 활용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상담 및 진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 등의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그릿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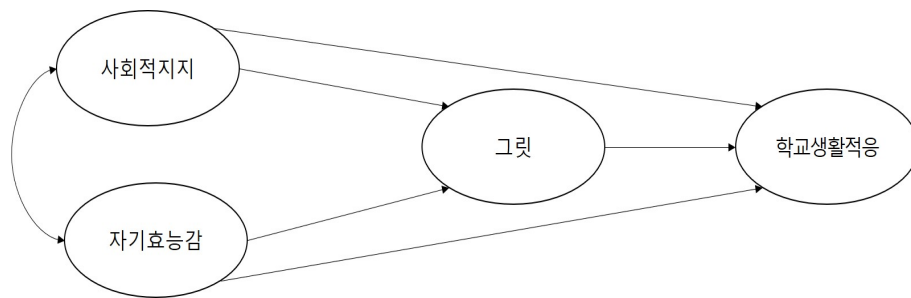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남녀 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대상 모집을 위해 D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가 각 학교에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초등학교가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이들 학교는 D시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고,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분포가 높으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173명(50%), 여학생 173명(50%)이었고, 학년별 구성 분포는 5학년 138명(39.9%), 6학년 208명(60.1%)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최종적으로 응답한 인원은 총 346명이었으나, 연속적으로 동일한 번호로 계속 응답을 한 설문지와 응답이 여러 문항에 대해 누락된 불성실한 응답 설문자료를 제외하고, 총 30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한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08명 중 남학생 160명(51.9%), 여학생 148명(48.1%)이었고, 학년별 구성분포는 5학년 124명(40.3%), 6학년 184명(59.7%)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는 인간 발달 단계상 논리적,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명료한 평가가 가능하고 객관적인 자아 지각으로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표

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Montemayor & Eisen, 1977).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에서는 그릿을 21세기의 핵심역량으로 지목하고 학생들의 그릿을 기르기 위한 다각적인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바(Shecthman, DeBarger, Dornsife, Rosier, & Yarnall, 2013), 그릿이 높은 초등학생은 학교생활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강지선 등, 2022)을 고려하여 중학생으로 학령전환기를 앞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릿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연구절차

연구실시 전 H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해 연구심의신청을 실시하여 승인(2022-02-10-0906)을 받았다. 본 연구 진행 시 사전에 협의된 각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율적 참여와 보상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학생 모집을 위해 각 학급 담임 교사의 양해를 구하여 아침 활동 시간을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구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내용설명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로 설명문, 연구내용설명 영상,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전달하였고,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법정대리인과 함께 검토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연구담당자의 모바일

일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연구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담당자의 모바일 메신저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면동의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 주소 URL을 개별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하여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보장되는 사적 공간에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급 담임교사에게는 온라인 기프티콘 10,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과 학생에게는 2,000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응답시간은 약 10~15분 정도로 소요되었다.

3. 측정도구

1) 사회적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erman(1983)이 청소년의 대인 간 지지 평가를 위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등을 변안하고 문항 분석을 거쳐 구성한 것이다. 아동은 사회적지지를 지지의 내용이 아니라 제공원에 따라 구별하여 지각하며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은 친구, 가족, 교사이다(한미현, 유안진, 1996). 따라서 사회적 지각 척도의 하위 영역을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로 나누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지지 문항의 예는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등 8문항이 있고, 가족지지 문항의 예는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등 8문항이 있으며, 교사지지 문항의 예는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담임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등 8문항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문항별 신뢰도 점수는 친구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 .88, 가족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 .92, 교사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것을 김아영(1997), 심계화(2004)가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표현으로 변안하고, 김재호와 정철영(2006)이 수정·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문항 수는 총 20 문항이며 각각 자신감 9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5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감 문항의 예는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등 9문항이 있고, 자기조절 효능감 문항의 예는 “나는 계획을 잘 세운다.”, “나는 일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처리하는 편이다.” 등 5문항이 있으며, 과제난이도 선호 문항의 예는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 등 6문항이 있다. 각 문항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문항별 신뢰도 점수는 자신감의 신뢰도(Cronbach's α) .74, 자기조절효능감의 신뢰도(Cronbach's α) .63, 과제난이도의 신뢰도(Cronbach's α) .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그릿 척도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서 Duckworth와 Quinn(2009)이 타당화한 Short Grit Scale(Grit-S)를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변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내’로 설명되는 노력의 지속성과 ‘열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심의 일관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력의 지속성과 관심의 일관성은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력의 지속성 문항의 예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등 4문항이 있으며, 관심의 일관성 문항의 예는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등 4문항이 있다. 관심의 일관성 문항은 모두 역채점 문항이다. 총 8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정채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점수 범위에 따라 응답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인 역채점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이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평가한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문항별 신뢰도 점수는 노력의 지속성의 신뢰도(Cronbach's α) .68, 관심의 일관성의 신뢰도(Cronbach's α) .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그릿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에서 현주, 김양분, 박현정과 김태은(2006)이 개발한 초등학생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수는 총 15문항 3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업적 적응 5문항, 사회적 적응 5문항, 정의적 적응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적응 문항의 예는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잘 대답한다.”, “나는 모든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한다.” 등

5문항이 있고, 사회적 적응 문항의 예는 “나는 우리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한다.”,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등 5문항이 있으며, 정의적 적응 문항의 예는 “나는 수업시간에 판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학교의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든다.” 등 5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문항별 신뢰도 점수는 학업적 적응의 신뢰도(Cronbach's α) .62, 사회적 적응의 신뢰도(Cronbach's α) .66, 정의적 적응의 신뢰도(Cronbach's α) .72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SEM)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넷째, 그릿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절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표 1에 제

시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 변인들의 왜도는 절댓값 최소 .01에서 최대 1.17, 첨도는 절댓값 최소 .02에서 최대 1.25의 값을 나타내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왜도 < |2|, 첨도 < |4|)을 충족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측정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그릿의 하위변인 중 노력의 지속성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r = .64, p < .01$), 자기조절 효능감($r = .64, p < .01$), 과제난이도 선호($r = .54, p < .01$),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업적 적응($r = .50, p < .01$)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지지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적 적응($r = .55, p < .01$) 및 사회적 적응($r = .51, p < .01$)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인 교사지지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정의적 적응($r = .56, p < .01$)과 높은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반영하는지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연구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한 적절한 적합도 지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지수인 χ^2 통계량, χ^2/df , NFI, TLI, CFI, SRMR, 신뢰구간이 제시되는 RMSEA 등의 지수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χ^2 통계량은 p 값이 .05 이상이면 적합하나 표본 수에 민감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χ^2/df 는 2 미만 또는 최대 3 미만이면 양호하고, NFI, TLI,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평가한다. SRMR은 .08 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보고, 95% 신뢰구간이 제시되는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우수한 적합도로 평가하며 .08 이하면 좋은 적합도 .10

표 1.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 결과

($N = 308$)

		(1)	(2)	(3)	(4)	(5)	(6)	(7)	(8)	(9)	(10)	(11)
사회적 지지	(1) 친구지지	1										
	(2) 가족지지	.43**	1									
	(3) 교사지지	.38**	.21**	1								
자기 효능감	(4) 자신감	.43**	.47**	.34**	1							
	(5) 자기조절 효능감	.34**	.31**	.28**	.71**	1						
	(6) 과제난이도 선호	.32**	.38**	.28**	.65**	.62**	1					
그릿	(7) 노력의 지속성	.44**	.36**	.34**	.64**	.64**	.54**	1				
	(8) 관심의 일관성	.29**	.34**	.19**	.35**	.27**	.35**	.26**	1			
학교 생활 적응	(9) 학업적 적응	.55**	.38**	.51**	.48**	.39**	.34**	.50**	.27**	1		
	(10) 사회적 적응	.51**	.39**	.43**	.52**	.42**	.36**	.48**	.34**	.69**	1	
	(11) 정의적 적응	.48**	.35**	.56**	.51**	.48**	.45**	.50**	.30**	.69**	.76**	1
	평균(M)	3.74	4.19	3.68	3.72	3.35	3.18	3.58	3.52	3.80	3.80	3.42
	표준편차(SD)	.64	.72	.64	.55	.66	.64	.72	.72	.58	.61	.67
	왜도	-.55	-1.17	0.22	-.18	-.01	-.05	-.22	-.58	-.02	-.02	-.15
	첨도	.88	1.25	0.49	.19	.02	-.19	-.32	.05	-.32	.60	-.33

** $p < .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적합도	χ^2	df	χ^2/df	NFI	TLI	CFI	SRMR	RMSEA (95% CI)
결과값	107.31	38	2.82	.94	.94	.96	.05	.08 (.06 ~ .09)

이하면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평가하고 있다(Hu & Bentler, 1999).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chi^2 = 107.31(df = 38, p < .001)$, $\chi^2/df = 2.82$, NFI = .94, TLI = .94, CFI = .96, SRMR = .05, RMSEA = .08(.06 ~ .09)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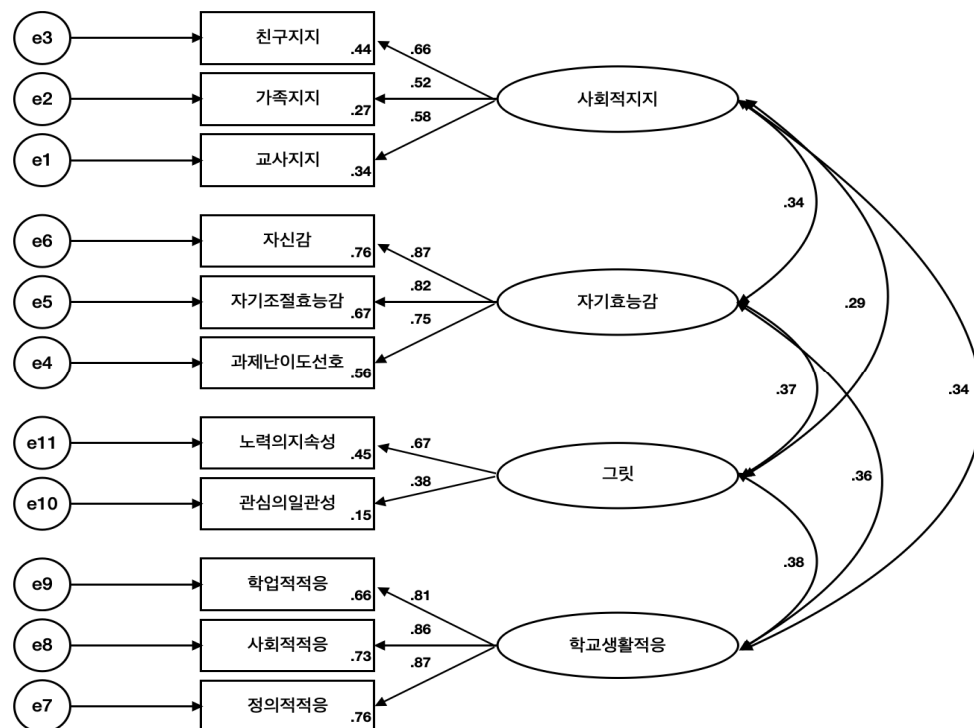
표 3에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제시하였다. 계수를 1로 고정시킨 측정변인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인의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표준화 회귀계수(β)값이 그릿 → 관심의 일관성(.38)을 제외한 모든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관심의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 = 308)

경로	B	β	S.E.	t(C.R.)	p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13	.66	.13	8.90	***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1.99	.52	.13	7.47	***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1.00	.58			
자기효능감 → 자신감	1.00	.87	.76	14.85	***
자기효능감 → 자기조절 효능감	1.13	.82	.08	14.06	***
자기효능감 → 과제난이도 선호	1.00	.75			
그릿 → 노력의 지속성	1.76	.67	.25	7.07	***
그릿 → 관심의 일관성	1.00	.38			
학교생활적응 → 학업적 적응	.81	.81	.05	18.70	***
학교생활적응 → 사회적 적응	.90	.86	.05	17.38	***
학교생활적응 → 정의적 적응	1.00	.87			

*** $p < .001$.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2. 측정모형

일관성 요인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측정 모형의 적합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측정모형 내의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검증하기로 하였다(그림 2 참조).

3.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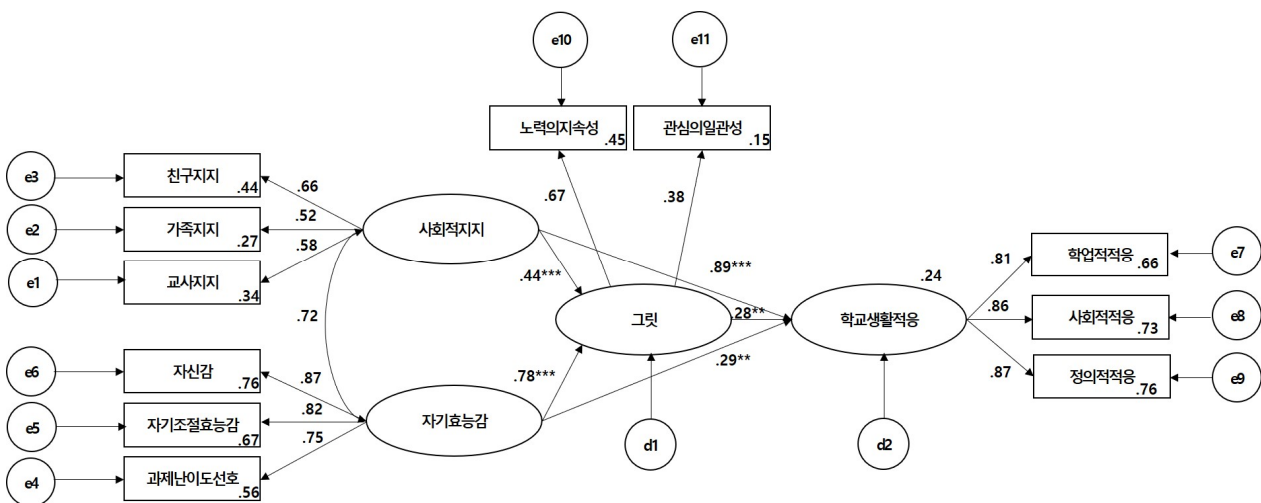
초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림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수 간의 총 5개의 경로를 정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동일하였다. 따라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적지지와 그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며($\beta = .44, p < .001$), 자기효능감도 그림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78, p < .001$). 이는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각각 그림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며($\beta = .89, p < .001$),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29, p < .01$), 그림 역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28, p < .01$). 이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림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2,000번 실시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 $p < .01$. *** $p < .001$.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3. 구조모형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308$)

경로	B	β	$S.E.$	$t(C.R.)$	p
사회적지지 → 그림	.56	.44	.17	3.31	***
자기효능감 → 그림	.80	.78	.12	6.48	***
사회적지지 → 학교생활적응	1.11	.89	.20	5.57	***
자기효능감 → 학교생활적응	.36	.29	.25	1.49	**
그림 → 학교생활적응	.34	.28	.24	1.45	**

** $p < .01$. *** $p < .001$.

표 5. 매개효과 검증 결과

(N = 308)

경로	B	S.E.	β	신뢰구간 (95% CI)
사회적지지 → 그릿 → 학교생활적응	.21*	.01	.12	(.01 ~ .30)
자기효능감 → 그릿 → 학교생활적응	.25*	.04	.22	(.02 ~ .49)

* $p < .05$.

설정하였다. 간접경로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홍세희, 2007). 그 결과 표 5와 같이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그릿은 간접경로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매개경로를 보였고($\beta = .12$, $p < .05$),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그릿은 간접경로에 대한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매개경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beta = .22$, $p < .05$).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하며,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그릿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교사, 친구들과 같은 사회적 지지원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관심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김아영의 연구(2018)와 중학생들 역시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아진다는 한정옥, 박선미의 연구(2018), 그리고 가족 간

의 활발한 의사소통,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와 부모가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 보도록 권장하는 것이 초·중·고 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미숙 등의 연구(2015)에 부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가 그릿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또래 집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또래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와 같은 학교 환경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지지가 그릿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의 지속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그릿이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한 연구(김주아, 2019; 박용진, 나승일, 2019)와 부합한다. 이를 통해 그릿과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향해 지속하는 행동과 관련을 맺는 변인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김은희, 송선희, 2020).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의 지속성과 상관이 높은 것은 그릿이 높은 사람은 목적 달성을 위한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견디어 노력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냄을 알 수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발생하며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으로 교과 및 학교행사 등의 전반적인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사회

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담임교사,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홍애순과 조규판(2014), 초등학생이 교사와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는다 느낄 때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향상된다는 정동화(1995), 또래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또래에게 충분한 사랑과 이해, 격려 및 지지를 받는다고 인지한 학생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박은주와 심우엽(200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넷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최정아(2015),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가 좋고 학급활동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정윤정과 임선아(2013), 높은 자기효능감은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어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박준성과 정태연의 연구(2007)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데(Bandura, 1986), 이러한 점에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릿 수준이 높은 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중학생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정적 상관을 밝힌 임현진(2019), 남자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교적응의 정적 상관을 밝힌 최미경(2016), 대학생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주지향과 정구철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그릿의 하위요인 중 노력의 지속성이 그릿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은 개인이 장기간 특정 목표에 대해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서도 학교생활적응 증진을 위해 그릿의 특성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릿은 성장과정에서 인지적 성숙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높아지기도 하지만 노력을 통해서도 향상할 수 있으므로(Duckworth, 2016) 학교에서는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활동 및 상담 장면에서 제공하여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초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그릿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릿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친구, 가족, 교사에 의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황은희(2017),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유지애, 조은애와 이아라(2019),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김아영(2018), 중학생의 사회적지지는 그릿의 조절효과로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조수진의 연구(2017)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릿의 발달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함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류영주, 2018; 황매향 등, 2017; Duckworth, 2016)를 지지한다. 이는 부모와 교사, 또래에게 얻는 관심, 격려, 조언 등의 사회적지지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릿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그릿은 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진 부모와 교사들의 의지와 실천적인

노력, 그리고 친구들의 지지에 따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내적 요인이다. 따라서, 신뢰감이 높은 부모와 교사가 제시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칭찬이나 보상 및 포레놀이나 동료학습에서 친구들로부터 받는 긍정적 피드백은 초등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회복력을 가져와 그것 수준을 높여 학교생활적응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것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수준이 높을수록 그것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교과 및 학교행사 등의 참여에서 학교생활 전반적인 목표성취에 만족하여 궁극적으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것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 간의 관계에서 그것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윤성혜, 유지원과 유명란의 연구(2017)와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그것, 영어능력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그것에 영향을 주고, 영어능력을 향상한다는 황명환의 연구(2017)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개인 자신의 전략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이고(Wood & Locke, 1987), 주어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Schunk, 198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여도 이를 어려움에 처했다고 느끼기보다는 극복해야 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각한다(임순선, 2013)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그것의 하위요인인 노력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이 그것임을 고려해 보면 그것은 학교생활적응 장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긍정적인 믿음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김아영, 2018). 학생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

라 노력의 가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교육 장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홍다현, 김정섭, 2021).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바탕으로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놀이 및 과제, 목표의 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과제수행 과정에서 배우는 실패의 경험, 장기간의 노력 속에서 깨닫는 성장의 기쁨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학교생활적응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적응을 돕는 기반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주요한 환경적 변인임(백정숙, 김현진, 2020)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육 장면에서 학생 개인에게 자신이 어떤 행동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할 때 행동변화가 일어나서 그 행동을 해낼 수 있다(김남성, 1995)는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끌어 줌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지각하게 하여 상황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환경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재능보다 노력에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중 겪는 어려움은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인식, 태도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Duckworth, 2016) 학생들의 실수나 실패는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것과 같은 기존 연구들은 학업성취와 수행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본 연구는 그것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D시의 외곽 지역의 맞벌이 가정의 분포가 높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초등학교 5·6학년 학

생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연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학생으로의 학령기 전환을 맞이하게 될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 증진을 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가진 부모와 교사들에게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의 필요성에 대한 소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는 맞벌이 가정 및 기초학력 부진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방과 후, 상담 및 진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 등에서의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적용과 함께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위한 부모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시의 외곽 지역 소재 초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것을 분석한 것으로 응답 결과가 지역적으로 편향된 특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기에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김미숙 등, 2015; 임효진 등, 2016)에서 볼 수 있듯이 학년 차, 학교급 차이에 따른 학생들의 그릿 수준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표집 대상의 학년별 분포를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일반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해 그릿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릿코칭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활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정경숙, 2018), 청소년 그릿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박정인, 2021), 대학생의 그릿 증진을 위한 집단 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안혜연, 이혜지, 2020) 등의 그릿 향상 프로그램 국내 연구가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본 연구모형을 통해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릿,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여전히 다루

지 못한 중요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 장면에서 적응의 성과와 관련된 변인을 포함시켜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지선, 이규진, 이모영 (2022). 초기 청소년의 성장마인드셋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학회지*, 3(4), 23-44.
<https://doi.org/10.51613/JKYCA.2022.3.4.23>
- 곽미선, 김영화, 권선아, 이수영 (2021). 초등학교 고학년의 그릿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827-839.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9.827>
- 김남성 (1995). *인지적 행동수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슬 (2015). 초·중·고 학생의 그릿(Grit)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성별·학년별 특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297-322.
- 김선영 (2007). 초등학교 취학 월령에 따른 1학년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 비교. *유아교육연구*, 27(2), 119-138.
- 김성호 (2016). 고등학생의 자기복잡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긍정적 자동적 사고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적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2018).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용래, 유효현 (2002). 자기효능감과 수업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탐색. *인문과학*, 10, 93-115.
- 김은희, 송선희 (2020).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난독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345-371.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4.345>
- 김재호, 정철영 (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4), 119-137.
- 김주아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2005).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구, 박다은 (2017).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학업성취

- 의 관계에서 투지의 매개 효과. *교육심리연구*, 31(1), 145-162. <https://doi.org/10.17286/KJEP.2017.31.1.07>
- 김창규 (2020). 초등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준 (2016). 청소년의 시민적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시민·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0(3), 535-558.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https://doi.org/10.25020/je.2015.35.3.63>
- 남미정 (2018).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그릿, 협력적 조절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영주 (2018). 그릿(Grit)은 어떻게 발달하고 발휘되는가?: 노력-보상 불균형, 선행과제 도전 횟수, 역경과제 재도전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진, 나승일 (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소속감,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그릿(Grit)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2), 97-120. <https://doi.org/10.23840/agehrd.2019.51.2.97>
- 박은주, 심우엽 (2005).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 친구, 교사 관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4(1), 285-310.
- 박정인 (2021). 청소년 그릿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준성, 정태연 (2007). 신앙심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498-499.
- 백정숙, 김현진 (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4), 141-161. <https://doi.org/10.15284/kjhd.2020.27.4.141>
- 성선진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요인의 인과관계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여울, 구민주, 박다운 (2019). 고등학생의 그릿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발달*, 32(3), 21-36. <https://doi.org/10.35574/KJDP.2019.09.32.3.21>
- 심계화 (2004).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혜연, 이혜지 (2020). 대학생의 그릿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동가족치료연구*, 19, 49-63.
- 유지애, 조은애, 이아라 (201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973-994.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0.973>
- 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36(3), 47-66. <https://doi.org/10.37210/JVER.2017.36.3.47>
- 이상영 (2016). 청소년의 자기개방과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서정, 신태섭 (2018). 고등학생의 마인드셋이 그릿을 매개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학 포기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1), 59-87. <https://doi.org/10.15753/aje.2018.03.19.1.59>
-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투지(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https://doi.org/10.16983/kjsp.2013.10.3.349>
- 이숙연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릿(Grit)의 매개효과.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김덕진 (2019). 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또래관계: 그릿,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2), 209-222. <https://doi.org/10.15831/JKSSPE.2019.24.2.209>
- 이옥희 (2017).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열 (2018).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도, 그릿, 마인드셋에 관한 차이분석 연구: K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https://doi.org/10.21509/KJYS.2016.11.23.11.245>
- 이종명 (2019).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이 (2019). 청소년의 마인드셋, 학업적 그릿,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순선 (2013).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발달의 통합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2), 1-26.
- 임현진 (2019).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그릿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초등학생의 끈기(Grit),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조절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7(3), 43-65. <https://doi.org/10.15854/jes.2016.09.47.3.43>
- 장성화, 김옥진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 자기통제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1(3), 159-179.
- 전향신 (2018). 대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그릿, 내재적 미래지향 목표 및 학업적응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숙 (2018). 끈기(grit) 코칭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활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동화 (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 대한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윤정, 임선아 (2013).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7(4), 853-873.
- 정초하, 안도희 (2016).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책무성 및 학교 적응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9), 381-408. <https://doi.org/10.21509/KJYS.2016.09.23.9.381>
- 조수진 (2017).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호운, 서수현, 이승희, 김재철 (2014).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적응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 3회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제7주제, 정서발달, 500-518.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양상과 예측 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주지향, 정구철 (2019). 대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 활적응 간의 관계: 투지 및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8), 240-251. <https://doi.org/10.5392/JKCA.2019.19.08.240>
- 최미경 (2016).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고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투지(Grit)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75-102.
- 최아라, 이숙 (2017). 청소년의 기질과 사회적지지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55(3), 249-261. <https://doi.org/10.6115/fer.2017.019>
- 최영현 (2019). 초등학생의 사회적지지, 그릿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아 (2015).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응집력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학교콘텐츠학회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5, 283-284.
- 최정운 (2020). 초 · 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 그릿과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아, 이숙 (1996).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 및 만족도와 적응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12.
- 하도연, 김선희 (2018).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 오프라인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논문집*, 16(3), 55-66. <https://doi.org/10.6115/fer.2017.019>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정욱, 박선미 (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지지와 학업 성취압력이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165-182.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20.165>
- 현주, 김양분, 박현정, 김태은 (2006). KEDI 종합검사도구 개발 연구(1): 학업능력 및 학습자 특성검사. *한국교육개발원 기술보고*, TR2006-44, 146-149.
- 홍다현, 김정섭 (2021). 대학생의 마인드셋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7(1), 153-171. <https://doi.org/10.24159/joec.2021.27.1.153>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애순, 조규판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 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45-68.
- 황매향, 하혜숙, 김명섭 (2017). 초등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3), 301-319.
- 황명환 (2017). 한국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그릿, 자기효능감, 영어능력사이의 관계 연구. *영어교육연구*, 29(2), 145-164. <https://doi.org/10.17936/pkelt.2017.29.2.7>
- 황은희 (2017).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kos, P., & Kretchmar, J. (2017). Investigating grit at a non-cognitive predictor of college succes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40(2), 163-186. <https://doi.org/10.1353/rhe.2017.0000>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s. *Psychology Reviews*,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e Vera, M. J., Gavino Jr, J. C., & Portugal, E. J. (2015). Grit and superior work performance in an Asian context. In *Proceedings of 11th International Busines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Conference*.
- Dubow, E. F.,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Simon & Schuster.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Eskreis-Winkler, L., Shulman, E. P., Beal, S. A., & Duckworth, A. L.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 marriage. *Frontiers in Personality Scie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6), 1-12.
<https://doi.org/10.3389/fpsyg.2014.00036>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unt, C. W., Wilder, B., Steele, M. M., & Grant, J. S. (2012).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ocial problem solving, and self-management in a rural sample living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26(2), 126-141. <https://doi.org/10.1891/1541-6577.26.2.126>
- Isakson, K., & Jarvis, P. (1999).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1), 1-26.
- Jiang, X. (2013).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ial sources of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school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3), 1073-1086.
<https://doi.org/10.1007/s11205-012-0190-x>
- Montemayor, R., & Eisen, M. (1977).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3, 314-319.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Rohner, R. P. (1991). *Hand 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Scholz, U., Doña, B. G., Sud, S., & Schwarzer, R. (2002). Is general self-efficacy a universal construct? Psychometric findings from 25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3), 242-251.
- Schunk, D. H. (1981). Modeling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1), 93-105.
- Schunk, D. H.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71-86. https://doi.org/10.1207/s15326985ep2501_6
- Shechtman, N., DeBarger, A. H., Dornsife, C., Rosier, S., & Yarnall, L. (2013). *Promoting grit, tenacity, and perseverance; Critical factors fo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pp. 1-107).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 Strayhorn, T. L. (2014). What role does grit play in the academic success of black male collegians at predominantly white institutions? *Journal of African American Studies*, 18, 1-10.
<https://doi.org/10.1007/s12111-012-9243-0>
- Though, P. (2012). *How Children succeed: Grit, Curiosity, and the hidden power of character*.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 West, C. P., Dyrbye, L. N., Erwin, P. J., & Shanafelt, T. D. (2016). Interventions to prevent and reduce physician burnou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ational Center Biotechnology Information*, 5(388), 2272-2281.
- Wood, R. E., & Locke, E. A. (1987).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4), 1013-1024.